

한국과 독일 성인의 애착유형에 대한 비교연구

임 정 선[†]

계명대학교

Hoeger와 Buschkaemper(2002)는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Bielefelder Fragebogen zu Partnerschaftserwartungen)’라는 성인의 애착을 차원적으로 분류하는 질문지를 개발하여 독일 성인에게서 5가지의 애착유형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각 국가마다 애착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 성인의 애착유형 분포를 알아보고 그 분포를 독일 성인의 애착유형 분포와 비교하였다. 특히 이 설문지는 성인의 애착유형을 3가지로 제한하지 않고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일 성인에게서는 안전애착, 불안전-양가-애정적인 애착, 불안전-양가-단편 애착, 불안전-회피-협조적인 애착 그리고 불안전-회피-단편 애착의 5가지의 애착유형이 분류되었다. 그에 비해 한국 성인에게서는 안전애착, 불안전-양가애착, 불안전-회피-협조적인 애착 그리고 불안전-회피-단편 애착 등 4가지의 애착유형만이 확인되었다.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질문지 문항이 축소됨에 따라 애착유형이 세분화되어 분류되는데 미흡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주목할 점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독일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 애착유형이 거의 유사한 비율로 분포되었다는 것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임을 감안할 때 향후 연구과제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주요어 : 애착, 성인의 애착유형, 비교문화, 한국 성인의 애착, 독일 성인의 애착

[†] 교신저자 : 임정선,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704-701)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
Tel : 053-580-5425, Email : jslim@kmu.ac.kr

최초의 인간관계는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애착 형태는 미래 인간관계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요소이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John Bowlby(1907-1990)의 애착이론은 오랜 발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8년 영국의 정신분석가이자 소아정신과 의사인 Bowlby의 논문이 발표되자 당시 정신분석학계에서는 진화이론과 동물행동학, 생물학적인 이론들을 고려한 이 이론에 극단적으로 대립해서 논쟁을 벌였다. 이는 애착이론이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애착이론은 잠시 어머니와 떨어져 지게 된 유아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면서 발전된 이론이다. Bowlby(1977)는 “내가 편의상 애착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이론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강한 애착을 느끼는 인간의 경향성을 개념화하고, 애착 대상과의 원치 않는 분리 혹은 상실이 발생했을 때 수반되는 불안, 분노, 우울, 정서적 초연(emotional detachment)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고통과 성격장애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이민희 역, 2005: 31). 이처럼 애착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애정적인 유대로,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정서적 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내적 및 외적 위협이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애착행동을 보인다. 공포나 두려움에 처하거나 질병과 보살핌, 그리고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애착대상을 찾고 그 옆에 가까이 있으면 애착행동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1) 본문에서의 어머니는 일차적인 양육자를 의미한다.

초기의 애착연구가 아동의 애착행동에 집중되었던데 비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성인의 애착에 관심이 높아지며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유아기에 형성되었던 애착과 애착행동은 어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이다(Zimmermann, Becker-Stoll, Grossmann, Grossmann, Scheuerer-Engelich, Wartner, 2000). 아동기에 형성되는 양육자와의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내재화되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근간이 된다(Bowlby, 1969, 1973). 그러나 성인의 애착과 애착행동은 아동기와는 달리 가지적이지 않지만 슬픔, 상실, 이별, 질병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애착대상은 아동의 성장과 함께 변화 과정을 겪는데, 인생의 초반기에는 어머니가 중요한 애착인물이었지만 성장함에 따라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또래친구들이 추가되는 변화 과정을 보인다. 청소년기까지 부모는 중요한 애착인물이지만, 성장하면서 이 애착인물들의 중요도가 변하는 것이다.

성인기에는 일반적으로 연인이나, 결혼과 함께 남편과 아내가 일차적인 중요한 애착인물이 된다(Bowlby, 1980; Holmes, 2002). 부부(연인)관계에서 애착이 형성되고 각자는 상대방에게 애착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Bowlby(1980)는 부부관계란 적합한 선택 가능성을 가진 성인의 애착형태로, 이는 안정적인 기반이 되고 일과 탐구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하다면 보호막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성인의 애착유형은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1978)가 아동에서 분류한 전형적인 애착유형인 안전애착, 불안전-회피애착 그리고 불안전-양가애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안전애착 유형의 사람은 전체적으로 부부(연인)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받고 지원 받을 만 하다고 여긴다. 서로의 관계에 있어 불안전애착 유형의 사람보다 행복감과 만족감이 크며 상대방과 강력하게 연결됐다고 느끼며 상대를 더 많이 염려한다. 애착관계에 대한 준비자세가 되어 있고 관계에 많은 투자를 하며, 다른 사람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친밀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대방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며 싸울 때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한다(Mikula & Leitner, 1998; Bierhoff & Grau, 1999). 이에 비해 불안전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애착관계나 다른 사회적 관계에 있어 신뢰가 적고, 자신의 애착욕구가 불만족스럽게 채워질 것을 전제하면서 자신을 지원받고 사랑받기에 부족하다고 간주한다(Mikula & Leitner, 1998). 더욱이 불안전-회피애착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어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하는 기제가 있다고 가정된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애착에 대한 준비자세가 적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특히 적다(Bierhoff & Grau, 1999). 이 애착유형의 사람은 사랑에 빠지기 어려우며 정열적인 사랑에는 잘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부(연인)관계에서도 친밀함과 가까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확실히 강하다(Feen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한편 불안전-양가애착 유형의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자주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의 거절을 두려워하고 관계에서도 근접가능성을 통해 안정과 애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첫 눈에 쉽게 사랑에 빠지며 관

계 자체에 대해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상대방을 이상화한다(Feen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또한 불안전-양가애착 유형의 사람은 질투가 많고 다른 애착유형보다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경향이 높다(Hazan & Shaver, 1987).

현재 애착연구는 여러 연구 방향에서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이나 다른 요인들 - 인격발달의 관계, 가족체계, 중독의 관계, 정신이상의 관계 등 - 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또한 Ainsworth와 Wittig(1969)가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이라는 표준화된 실험으로 아동의 애착행동에 관한 연구 발표한 이래 각 국가에서는 애착행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애착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러 관계연구를 통해 이 애착유형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애착유형의 분포는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인간 관계적인 애착유형은 문화특수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독일이 비슷한 애착유형의 분포를 보이며 불안전-회피애착 유형이 안전애착 다음으로 빈번한 애착유형으로 보고되는데 반해, 이스라엘과 일본은 불안전-양가애착이 불안전-회피애착보다 빈번한 애착으로 보고되고 있다(Bretherton, 1997).

독일과 한국의 애착연구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1977년에 Klaus Grossmann과 Karin Grossmann이 Ainsworth와 Wittig(1969)의 연구에 대응한 종단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 독일 아동들은 미국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애착이 가장 빈번한 애착유형이었으나 불안전-회피애착 유형의 비율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Spangler & Grossmann, 1997). 이러한 연구결과는 애착유형의 빈도분포 차이

가 문화적인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이후 독일에서는 애착이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후 Gloger-Tippelt, Vetter와 Rauh(2000)는 ‘낮선 상황’을 측정도구로 하여 아동의 애착유형을 연구한, 독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비교 조사하는 메타연구를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1977년부터 1995년까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아동 731명이 ‘낮선 상황’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독일에서의 애착유형은 미국과는 다르게 분포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laus Grossmann과 Karin Grossmann의 초기연구에서와 같은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겠다.

van Ijzendoorn(1992)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애착유형 표준분포는 안전애착 67%, 불안전-회피애착 21% 그리고 불안전-양가애착 12%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독일은 안전애착이 58.8%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애착유형이었으나, 눈에 띄는 것은 불안전-회피 애착이 29.2%로, 8.3%의 불안전-양가 애착보다 상당히 빈번한 애착유형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Ainsworth와 Wittig(1969)의 애착연구에 대응하여 ‘낮선 상황’을 측정도구로 한 애착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장미자(199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54명의 아동이 ‘낮선 상황’을 측정도구로 하는 애착연구에 참가하였는데, 안전애착이 66.8%로 가장 빈번한 애착유형으로 나타났다. 불안전-회피애착은 18.8%로 11.3%의 불안전-양가애착보다 빈번한 애착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애착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 애착과 관련된

300여 개의 논문과 500여 개의 석·박사 논문이 발표되었으며(<http://www.nl.go.kr>)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부모애착과 자동적 사고,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유영란, 이지연, 2006),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 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김광은, 2005), 애착 장애의 치료(노경선, 이소희, 2004) 등 정상적인 애착에서부터 애착장애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 그러나 애착연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성인 대상의 애착유형 분포 그 자체에 관한 연구나, 한국과 외국과의 비교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성인 애착유형을 여러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여 확인하였으나, 이는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및 사랑유형(김주연, 2001; 노유진, 2006; 이복동, 2000; 장미희, 1995; 조선경, 2006), 애착유형과 정서조절, 대처방식과의 관계(문혜정, 2004; 박은영, 1998; 신노라, 2000, 신미, 2006; 정미나, 2003.; 한명희, 2004) 등이 연구되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한국 성인의 애착유형을 확인하고 그것을 독일 성인들의 애착유형과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권 국가 간의 애착유형 분포에 관한 문화적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시 말해 독일의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한국 성인의 애착유형분포를 알아보고 그 분포와 독일 성인들의 애착유형 분포를 비교 연구하여 양 국가의 성인 애착유형에 관한 기초 자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 연구를 통해 각국의 문화적인 특수성과 보편성이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

리라고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심리학자인 Hoeger와 Buschkaemper(2002)가 성인의 애정 관계를 기초로 하여 개발한 ‘배우자(연인) 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Bielefelder Fragebogen zu Partnerschaftserwartungen)’가 측정도구로 사용되었다. 이 설문지는 Hazan과 Shaver(1987)가 3 범주모형으로 또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4 범주모형으로 애착유형을 분류했던 범주적 분류방식이 아닌 Collins & Read(1990)가 제안한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척도의 조합을 통해 애착유형을 연속적 차원에서 분류하는 측정도구이다. 또한 성인의 애착유형을 기존의 3가지 애착유형(안전애착, 불안전-회피애착, 불안전-양가애착)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Hoeger와 Buschkaemper(2002)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 성인에게서는 안전애착, 불안전-양가-애정적인 애착, 불안전-양가-단편 애착, 불안전-회피-협조적인 애착 그리고 불안전-회피-단편 애착의 5가지의 애착유형이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성인에게서도 독일성인에게 확인된 5가지의 애착유형이 확인되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독일의 것과 비교하려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성인 애착유형 조사는 한국인과 독일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한국인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442명의 성인으로, 여성 73.1%, 남성 25.3%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연령은 19세부터 61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31세였다. 조사대상자의 직

업으로 여성은 가정주부(30.9%), 대학생(34.1%)이 가장 많았고, 남성은 연구직(24.3%), 회사원(25.2%), 대학생(27.0%) 순이었다. 조사기간은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인 독일인 조사대상자는 Hoeger와 Buschkaemper(2002)가 조사 발표한 독일 Bielefeld 지역의 북부 거주주민 등 402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성 55.4%, 남성 44.6%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연령은 17세부터 82세까지로 평균연령은 37세였다. 조사대상자 중 30%는 대학생들이었고, 25%는 연구, 교육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졌고 그 외에 회사원, 가정주부, 연금생활자 등 여러 종류의 직업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Bielefelder Fragebogen zu Partnerschaftserwartungen)’는 Hoeger와 Buschkaemper(2002)에 의해 제작된 총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지이다. 5점 척도로 된(1=전혀 맞지 않음에서부터 5=정확히 맞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지는 배우자(연인)에게 또는 배우자(연인)관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나 행동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우자(연인)가 없는 사람은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에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세 개의 척도를 군집분석(Clusteranalyse)을 통해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애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 척도가 직접적으로 애착유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애착에 중요한 인식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근거한 것이며, 애착이론에 근거해서 각 척도의 조합을

통해 애착유형이 분류된다. 설문지의 세 개의 척도는 열린자세(Oeffnungsbereitschaft), 수용문제(Akzeptanzproblem)와 애정욕구(Zuwendungsbeduerfnis)이다.

열린 자세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세를 의미한다.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도 대화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용문제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상대방이 수용한다고 해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구심-이나 기대를 표현하다. 애정욕구는 스스로가 지각하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현존이라는 의미에서의 친밀함과 애정에 대한 바람을 표현한다.

열린자세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관계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관계 자체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안정애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수용문제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수용 할 수 없다고 보고, 다른 사람도 자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과 연관하는 이 수용문제 척도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적은 경우이다. 이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불안전-양가 애착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수용문제와 열린자세는 대부분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애정욕구는 특별히 애착에 중요한 부분을 측정하는데, Hoeger와 Buschkaemper(2002)의 경험에 의하면, 이중성이 기대되어지는 항목이 바로 애정욕구이다. 애정욕구의 높은 점수는 안전애착뿐만 아니라

불안전-양가애착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독일어로 된 설문지를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후 다시 한국어와 독일어를 구사하는 한인 2세 연구원들로 하여금 재번역을 하는 방법으로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설문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문항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 문항 제거시의 합치도를 구하였고 요인분석과 문항분석 결과 첫 번째 도입문항을 제외한 30개의 문항 중 각 척도에서 6개의 문항이 선택되었다. varimax 회전의 주성분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1.0을 넘는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는 전체 변량의 43.4%를 설명하였다. 그 중 열린자세 요인이 15.1%, 수용문제 요인이 14.8% 그리고 애정욕구 요인이 13.6%를 설명하였다. 요인부하량은 각 요인별로 .373에서 .764로 나타났다(부록).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각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열린자세 .73, 수용문제 .71, 애정욕구 .67로 각 척도 당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독일어판 열린자세 .88, 수용문제 .89, 애정욕구 .77 보다는 낮았다. varimax 회전의 주성분 요인분석으로 요인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애착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Single-Linkage와 Ward Methode)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군집분석-한국인의 애착유형

군집분석을 통해 애착이론에 따라 해석 가능한 군집(Cluster)이 분류되었다. Single-Linkage

표 1. 군집별 평균과 표준편차

(z-값)

	열린자세		수용문제		애정욕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luster 1	.71	.63	-.60	.67	.73	.71
Cluster 2	-.24	.76	.88	.65	.76	.64
Cluster 3	.72	.70	-.96	.58	-.97	.65
Cluster 4	-.93	.75	.40	.80	-.65	.55

표 2. 4 개 군집별 빈도 (N=429)

	빈도	백분율%
Cluster 1	106	24.7
Cluster 2	113	26.3
Cluster 3	88	20.5
Cluster 4	122	28.4
합 계	429	100.0

를 통해서 상이한 값을 나타내는 10명을 제외한 후 429명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으며 Ward Methode에 의해 애착이론에 따른 해석이 가능한 4군집의 애착유형이 분류되었다. 표 1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Ward-Method를 통해 얻은

원점수를 k-means 로 표준화한 점수이다. 군집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군집별 빈도는 표 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세 개 척도에 근거한 군집분석에 따르면 애착행동체계의 전술이라고 해석 될 수 있는 4가지의 애착유형이 한국 성인에게서 확인되었다.

그림 1과 같이 Cluster 1은 높은 열린자세와 애정욕구를 보이며 거기에 반해 낮은 수용문제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안정애착이라고 할 수 있다. Cluster 2는 높은 수용문제와 애정욕구를 보이는데, 이것은 불안전-양가애착이라고 할 수 있다. Cluster 3은 낮은 수용문제와 애정욕구에 비해 높은 열린자세 점수가 나왔다. 이것은 불안전-회피 애착에 속한다고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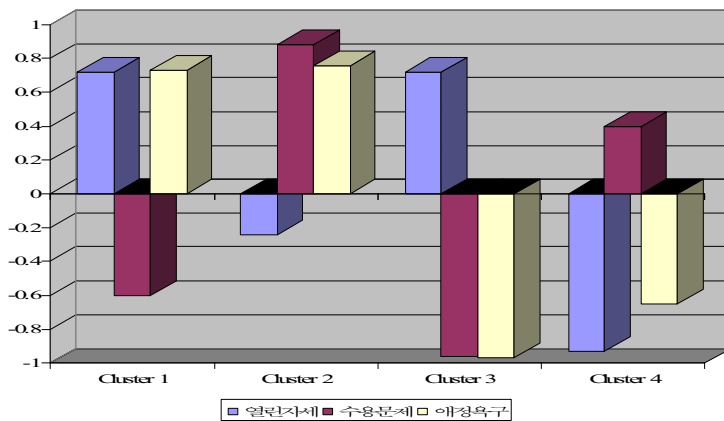


그림 1. 4개 군집의 평균 척도값 (z-값)

다. 그러나 Hoeger와 Buschkaemper(2002)는 높은 열린자세로 인해 불안전-회피-협조적인 애착이라고 그들의 선행연구에서 명명하였다. Hoeger와 Buschkaemper(2002)는 이 애착유형을 안전애착과 불안전-회피애착의 중간위치라고 보고 실질적인 이유에서 이 유형을 안전애착으로 분류하고 조건부 안전애착이라고 명명하기를 제안하였다. Cluster 4는 낮은 열린자세와 애정욕구가 두드러지는 불안전-회피 애착유형으로 특별히 낮은 열린자세와 애정욕구는 불안전 회피애착 중 불안전-회피-단한 애착이라고 할 수 있다.

군집비교-독일인의 애착 유형

Hoeger와 Buschkaemper(2002)는 군집분석을 통해서 애착이론에 따라 해석 가능한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Single-Linkage와 Ward Methode에 따라 5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불안전-회피-단한 애착, 불안전-회피-협조적인(또는 조건부 안전 애착) 애착, 안전애착, 불안전-양가-애정적인 애착, 불안전-양가-단한 애착이다. 표준화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군집별 빈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Cluster 1은 낮은 열린자세와 애정욕구를 보이는 불안전-회피-단한 애착이다. Cluster 2는 높은 열린자세와 거기에 비해 낮은 애정욕구를 나타내는 불안전-회피-협조적인 (또는 조건부 안전 애착) 애착이다. Cluster 3은 비슷하게 높은 열린자세와 애정욕구를 보이며 낮은 수용문제를 나타내는 안전애착이다. Cluster 4는 높은 수용문제와 애정욕구를 나타내고 보통의 열린자세를 나타내는 불안전-양가-애정적인 애착이다. Cluster 5는 높은 수용문제와 애정욕구에 비해 뚜렷이 낮은 열린자세를 보이는 불안전-양가-단한 애착이다 (Hoeger & Buschkaemper, 2002).

표 4. 5개 군집별 빈도 독일성인의 애착유형 분포(N=380)

	빈도 한국(n=429)		백분율 독일(n=380)	
	n	%	n	%
Cluster 1	100	23.3	26.3	6.9
Cluster 2	81	18.9	71.3	18.8
Cluster 3	106	24.7	20.5	5.4
Cluster 4	78	18.2	121	31.8
Cluster 5	84	19.6	22.1	5.8
Cluster 1	88	20.5	81	21.3
Cluster 2	37	8.6	9.8	2.6
Cluster 3	38	8.9	100	26.3
Cluster 4	22	5.1	21.3	5.6

표 3. 군집별 평균과 표준편차

	열린자세		수용문제		애정욕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luster 1	-.83	.65	.007	.58	-.64	.64
Cluster 2	.74	.49	-.85	.44	-.96	.59
Cluster 3	.78	.53	-.79	.42	.53	.52
Cluster 4	.27	.51	.66	.60	.83	.66
Cluster 5	-1.42	.73	1.78	.61	.53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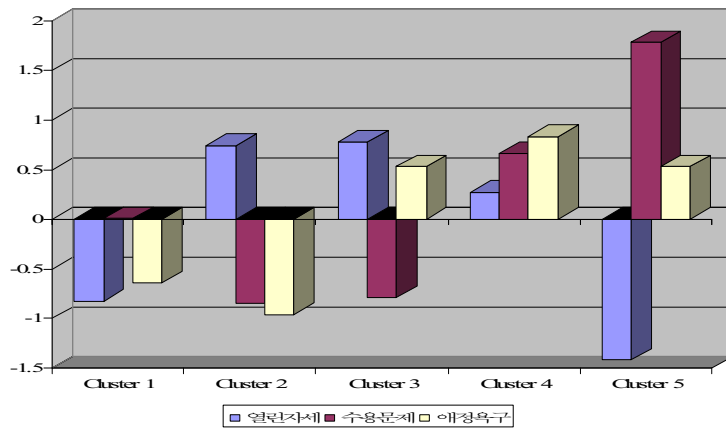


그림 2. 5개 군집의 평균 척도값 (z-값)

한국 성인과 독일 성인의 네 범주 애착유형의 비교

한국인 연구대상자에서는 4가지의 애착유형이 확인되었고 독일인 연구대상자에서는 5가지의 애착유형이 확인되었다. 한국 성인의 애착유형 중에서는 불안전-양가 애착유형이 세분화되어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의 애착유형을 비교하기 위해서 독일 성인의 불안전-양가-애정적인 애착과 불안전-양가-단편 애착을 하나의 애착유형 불안전-양가애착 유형으

로 합치시켰다.

표 5와 그림 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애착유형의 분포에 있어서 두 국가 간에 뚜렷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인 연구대상자에서는 불안전-회피-단편 애착이 독일인 연구대상자에서는 불안전-양가 애착이 약간 두드러지는 애착 유형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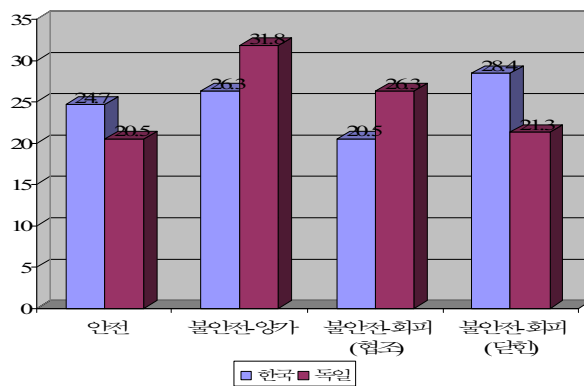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성인과 독일성인의 네 범주 애착유형의 분포 비교 (%)

이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라는 설문지를 가지고 군집분석을 통해서 한국 성인의 애착유형을 분류하여, 독일에서 연구된 세분화된 애착유형을 한국 성인에게서도 확인하고 이를 독일의 애착유형과 비교하는 것이었다. 독일에서 개발된 질문지이기 때문에 번역된 문항들이 척도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과 척도와의 상관, 문항 제거시의 합치도 등의 문항분석과 문항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항과 척도의 상관이 .03 이하이거나, 문항 제거 시 척도의 합치도를 높이는 문항들이거나, 여러 요인에 동시에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낼 경우, 또는 요인부하량이 .03 이하의 값을 보이는 문항들을 제외한 후 각 척도에서 6개의 문항으로 총 18개의 문항만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부적합 문항으로 밝혀진 문항들을 살펴보면, 번역된 문항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중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부(연인)관계 자체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제작자가 원래 의도한 의미가 한국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외된 문항들이 왜 부적합하게 판정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차후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자세, 수용문제 애정욕구라는 세 가지 척도는 요인적인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한국어판 척도들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열린자세 .73, 수용문제 .71, 애정욕구 .67로 독일어판 열린자세 .88, 수용문제 .89 그리고 애정욕구 .77 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가 독일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한국인에게 문항의 이해도와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

된다. 독일어판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보다 적은 개수의 문항인 18 문항이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한국인에게서는 4가지의 애착유형이 확인되었다. 설문지를 개발한 Buschkaemper(1998)는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애착유형을 연구할 때 수용문제, 애정욕구, 열린자세에 속한 문항들이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척도에 부적합하게 나타날 경우 각 척도에서 적합한 문항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음을 자신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다.

Hoeger와 Buschkaemper(2002)의 연구에서 독일 성인에게서는 안전애착, 불안전-양가-애정적인 애착, 불안전-양가-단편 애착, 불안전-회피-협조적인 애착 그리고 불안전-회피-단편 애착의 다섯 가지의 애착유형이 분류되었으나 한국 성인에게서는 그 보다는 적은 안전애착, 불안전-양가애착, 불안전-회피-협조적인 애착, 불안전-회피-단편 애착 등 네 가지의 애착유형이 분류되었다. 불안전-양가-애착은 독일 성인과 같이 불안전-양가-애정적인 애착과 불안전-양가-단편 애착으로 세분화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설문지의 문항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선택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불안전-양가애착을 세분화해서 분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인의 군집분석을 통해 확인된 애착유형들은 독일 성인의 애착유형에서 발견된 세 가지 척도들의 조합과 일치한다.

안전애착은 불안전-양가애착이나 불안전-회피애착과는 달리 높은 열린자세와, 뚜렷한 애정욕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수용문제는 크기가 작다. 불안전-양가애착은 높은 수용문제와 함께 강한 애정욕구를 특징으로 한다. 거기에 낮은 열린자세일 경우 불안전-양가

애착의 하나인 불안전-양가-단힌 애착으로 분류되고 높은 열린자세를 나타낼 경우 불안전-양가-애정적인 애착으로 볼 수 있다(Hoeger & Buschkaemper 2002). 한국 성인에게서는 불안전-양가-애정적인 애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불안전-양가-단힌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강한 친밀함과 사랑에 대한 바람은 있으나 상대방을 믿고 자신을 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불안전-회피애착은 독일 성인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애착유형으로 세분화되었다. 불안전-회피-단힌 애착유형은 높은 수용문제와 낮은 열린자세 및 애정욕구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까움과 친밀함을 피하는 방어적이고도 회피적인 모습이다. 불안전-회피-협조적인 애착은 안전애착과 마찬가지로 높은 열린자세를 보이나 수용문제와 애정욕구에서 낮은 수치를 보인다.

불안전-회피-협조적인 애착을 Hoeger와 Buschkaemper(2002)는 안전애착과 불안전-회피애착의 중간으로 보았다. 이 애착의 높은 열린자세에 비해 낮은 애정욕구는 애착인물에게에 대한 적응행동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애착인물과의 관계에서 아동은 애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을 때에만 애정을 받는 경험을 했으리라고 가정된다. 왜냐하면 불안전-회피-협조적인 애착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요구사항이 적은 또는 친절한 사람들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Hoeger와 Buschkaemper(2002)에 의하면 이 애착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열린자세 척도만으로 볼 때 이 애착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애착에 중요한 감정이나 욕구가 있고 타인의 그런 표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자신의 애정에 대한 요구를 타인에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들은 사회관계 안에서 주로 받는 사

람이 아닌 주는 사람에 속하며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oeger와 Buschkaemper(2002)는 이 불안전-회피-협조적인 애착 유형을 실질적인 이유에서 안전애착의 한 부류로 분류하고 조건부 안전애착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하였다. Buschkaemper(1998)에 의하면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불안전-회피-협조적인 애착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다른 설문지에서 안전애착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 설문지의 장점으로 애착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에게서 불안전-회피-협조적인 애착(조건부 안전애착)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한국문화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가 장려되고 교육되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것은 애착유형의 분포에 있어서 독일과 한국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독일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처럼 문화권이 서로 다른 양국 간에 애착유형이 비슷하게 분포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애착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이다. 한국아동의 애착유형분포는 독일이나 미국 등 서구의 애착유형분포와 비슷하다. 안전애착이 가장 빈번한 애착유형이고 불안전-회피애착이 불안전-양가애착보다 많은 애착유형이다. 독일에서도 안전애착 다음으로 불안전-회피애착이 빈번한 애착유형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자립적인 교육방식이 강조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가정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문화권으로

아이 중심적인 엄마와 아동의 관계를 보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일본에서는 안전애착 다음으로 불안전-양가애착이 불안전-회피애착보다 빈번한 애착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같은 집단주의 사회라고 해도 애착유형의 분포가 다를 수 있으며 한국과 독일이라는 다른 문화권일지라도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애착관계)에서는 비슷하게 작동하는 행동양식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다른 문화권인데도 비슷한 애착유형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흥미로운 후속 연구과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문항이 축소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인의 애착유형의 분포형태를 알아보고 독일이라는 다른 문화권의 나라와 비교함으로써 문화비교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런 연구를 통해 우리와 다른 문화권의 비교 대상 국가를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주연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수준 및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노경선, 이소희 (2004). 애착장애와 치료. 한국가정관리학회, 15(2), 123-131.
- 노유진 (2006). 성인 애착유형이 미혼남녀의 사랑유형과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문혜정 (2004). 성인애착 및 자의식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수준의 차이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은영 (1998). 애착유형에 따른 방어전략의 효율성 비교. 석사학위청구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유영란, 이지연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41-460.
- 이수현, 김동민, 서영석(2006).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03-317.
- 이민희 역 (2005).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시그마프레스.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신노라 (2000). 성인 애착 유형과 대인 불안 수준의 관계. 석사학위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신미 (2006). 부와 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여대생의 성인애착. 석사학위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미자 (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박사학위청구논문, 경희대학교.
- 장미희 (1995). 애착유형과 사랑유형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 정미나 (2003). 성인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청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조선경 (2006). 성인애착과 사랑유형의 관계에서

- 자의식의 매개효과. 석사학위청구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한명희 (2004). 성인애착과 정서적 반응의 관계. 석사학위청구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S. & Wittig, B. A. (1969). Attachment and the exploratory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In B. M. Foss (Eds.), *Determinations of infant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113-136.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ierhoff, H. W. & Grau, I. (1999). *Romantische Beziehungen*. Bern: Verlag Hans Huber.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Dt. (1975): *Bindung*. Muenchen: Kindler. (1984) Frankfurt am Main: Fischer TB.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Dt. (1976): *Trennung*. Muenchen: Kindler TB.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I: Aetiology and psychopathology in the light of attachment theory; I: Some principles of psychotherap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and 421-431.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Dt. (1983): *Verlust*. Muenchen: Kindler. Fischer TB.
- Bretherton, I. (1997). Die Geschichte der Bindungstheorie. In Spangler, G. & Zimmermann, P. (Hg.), *Die Bindungstheorie*. Stuttgart: Klett-Cotta.
- Buschkaemper, S. (1998). *Entwicklung eines Fragebogens zur Erfassung des Bindungsstils erwachsener Personen*. Universitaet Bielefeld: Unveroeffentlichte Diplomarbeit.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4), 644-663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Gloger-Tippelt, G., Vetter, J. & Rauh, H. (2000): Untersuchungen mit der 'Fremden Situation' in deutschsprachigen Laendern.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47(2), 87-98.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 511-524.
- Hoeger, D. & Buschkaemper S. (2002). Der Bielefelder Fragebogen zu Partnerschaftserwartungen (BFPE): Ein alternativer Vorschlag zur Operationalisierung von Bindungsmustern mittels Fragebogen. *Zeitschrift fuer Differentielle und Diagnostische Psychologie*, 23(1), 83-98.

Holmes, J. (2002). *John Bowlby und die Bindungstheorie*.
Muenchen; Basel: Reinhardt.

Mikula, G. & Leitner, A. (1998). Partnerschaftsbezogene Bindungsstile und Verhaltenserwartungen an Liebespartner, Freund und Kollegen. *Zeitschrift fuer Soziologie* 3, 213-223.

Spangler, G. & Grossmann, K. (1997). Zwanzig Jahre Bindungsforschung in Bielefeld und Regensburg. In Spangler, G. & Zimmermann, P. (Hg.), *Die Bindungstheorie*. Stuttgart: Klett-Cotta.

원 고 접 수 일 : 2006. 9. 14

수정원고접수일 : 2006. 11. 10

게 재 결 정 일 : 2007. 3. 14

van Ijzendoorn, M. H. (1992): Intergeneratioanl transmission of parenting: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Development Review* 12, 76-99

Zimmermann, P., Becker-Stoll, F., Grossmann K., Grossmann, K. E., Scheuerer-Englisch, H. & Wartner, U. (2000). Bindungsentwicklung bis zum Jugendalter.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47(2), 99-117.

Comparative Study on the Attachment Types of Korean and German Adults

Jeong-Sun Lim

Keimyung University

Hoeger and Buschkaemper (2002) developed a questionnaire to classify adult attachment by dimension and identified five types of attachment in German adults. Previous research has supported the conclusion tha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distribution of attachment types. In the present study we compared the distribution of the attachment types of Korean and German adults. We identified five types of attachment in the German adult sample: Secure attachment, insecure-ambivalent-affective attachment; insecure-ambivalent-closed attachment; insecure-avoidant-cooperative attachment; and insecure-avoidant-closed attachment. We identified only four types of attachment in the Korean sample: Secure attachment, insecure ambivalent attachment; insecure-avoidant-cooperative attachment; and insecure-avoidant-closed attachment. It is possible that attachment types in the Korean sample were not classified sufficiently because the number of questionnaire items was reduced due to cultural differenc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was a highly similar distribution of attachment types in the German and Korean samples.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because these two countries belong to different cultural regions. It is notable that the distribution of attachment styles was almost identical for the strongly individualistic German adults and strongly collectivistic Korean adults.

Key words : attachment, adults' attachment type, comparative culture, German adults' attachment

부록. 배우자(연인)관계에 대한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 (N=439)

문 항	열린 자세	수용 문제	애정 욕구
2. 나는 내 배우자(연인)에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다.	.764		
7. 나는 내 배우자(연인)에게 나의 감정(느낌)을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다	.743		
30. 나는 나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나의 느낌, 바람, 욕구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내 배우자(연인)와 이야기 할 수 있다.	.721		
15. 나는 내 배우자(연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	.524		
23. 그(그녀)가 내 배우자(연인)라 할지라도, 많은 일을 나 혼자만이 간직한다.	.477		
10. 나는 내 배우자(연인)와 이야기 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일반적인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373		
17. 내 배우자(연인)가 나에게 사랑스럽게 대하면 내 배우자(연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655		
3. 내 배우자(연인)가 나를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642		
28. 나는 내 배우자(연인)가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 주었으면 하는 나의 큰 바람이 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635		
20. 내게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내 배우자(연인)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한번쯤 들 것도 같다.	.525		
31. 내 배우자(연인)가 나를-나의 모습 그대로-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509		
9.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배우자(연인)가 알게 된다면 나와 거리를 둘까봐 걱정이 된다.	.477		
14. 내 배우자(연인)와 떨어져 있으면(여행, 사업상 등) 불안하고 신경이 곤두선다.	.637		
16. 내 배우자(연인)와 헤어지면 내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다.	.626		
22. 우리가 같이 있지 않아도, 내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내 배우자(연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다.	.618		
26.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할 때도 나는 헤어지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616		
18. 솔직히 내 배우자(연인)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내고 또 나만을 위해 신경을 써 준다면 가장 좋겠다.	.591		
11. 내가 굉장히 힘들 때면, 내 배우자(연인)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나에게 신경을 써 주는 것에 거의 의지한다.	.535		
요인들의 변량	15.1%	14.8%	13.6%